

4. 에케르트, 박윤근, 김영환, 흥난파에서 시작된 기악의 요람기

나 운 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양악은 1884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온 찬송가 보급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와 동요, 가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성악이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기악이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에케르트, 박윤근, 김영환, 흥난파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 4. 5 ~ 1916. 8. 6)

에케르트는 독일 태생으로서 드레스덴 음악학교(오보에 전공)를 졸업하고 해군 군악대 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879년 일본 해군 군악대의 교사로 취임했으며, 1900년 귀국하여 프로이센 왕실 악장의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초청으로 1901년 2월 19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대한제국 군악대>를 창설하고 그해 9월 7일 고종 탄신일에는 덕수궁 중화전에서 첫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1902년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 「시민 위한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찬송가가 아닌 서양의 본격적인 기악곡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악발전에 기틀을 세웠다.

또한 그는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했는데, 그의 전공이 작곡이 아니며 외국사람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가사와 곡조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비롯해 수준작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작곡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애국가가 외국인에 의해서 작곡되었다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에케르트는 1916년 8월 6일 최현동에서 별세하여 양화진에 묻힐 때까지 군악대를 통해 기악을 보급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는 한편 백우용, 정사인 등의 우수한 후계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백우용(白禹鎔, 1880 ~ 1960)

백우용은 1901년 한성관립 덕어(德語, 독일어)학교를 졸업하고 에케르트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중 에케르트에게 감화를 받아 음악을 전공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해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훈련을 받은 후 1902년 육군보병 참위(參尉)에 임명되었고 1904년 5월에 3등 군악장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군악대장으로서 지휘자가 되었다.

같은해 9월에는 2등 군악장, 1907년 3월에는 1등 군악장이 되었고, 군악대가 해산된 후인 1928년에는 「이왕직 아악부」(지금의 국립국악원의 전신)촉탁으로 국악채보를 전담하기도 했다. 그는 에케르트의 수제자로서 클라리넷의 연주자요, 작곡, 편곡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곡인 <20세기 청년 여자 창가>는 1922년 경성 광문 서시(書市) 발행으로 42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상준, 김인식의 창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반주는 없고 멜로디뿐이다. 그런가 하면 1918년에 극장 단성사(團成社) 신축기념으로 관현악단인 「단성사 악단」이 조직되었는데 지휘를 맡기도 했다.

정사인(鄭士仁, 1881 ~ 1958)

정사인은 서울 태생으로 1900년 곡호대(曲湖隊)를 거쳐 1901년 대한제국 군악대에 들어가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했

다. 그러나 1912년 군악대를 사임하고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중학부의 음악교사로 취임했으며, 1915년 개성 송도고보 교사로 취임하여 25년간 후진을 양성했는데 이때의 송도고보 브라스밴드는 연희전문학교 주최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다.

1940년 「경성 방송관현악단」(지휘 홍난파)의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했으며, 김형준(金亨俊)의 권유로 경기공고에서 브라스밴드 지도를 했으나 6.25로 말미암아 대구로 피난, 수복 후에 별세했다.

그는 이렇듯 플루트 연주자로, 혹은 브라스밴드 지휘자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1916년 작인 가곡 〈아, 내 고향〉(내 고향을 이별하고 타향에 와서.....)의 작곡자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 곡은 「세계걸작가곡 백장미 제1집」(이철 편집, 1927년 백장미사 발행)에서 작사자와 작곡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가 죽을 때에 연주해 달라고 이 곡을 브라스밴드곡으로 편곡하여 마지막 작품으로 남겼다고 하니 그의 작곡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1925년 발매된 안기영 독창의 레코드 〈내 고향을 리별하고〉에는 작곡 정사인이 명기(明記)되어 있으니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아동가요곡---300곡집」(강신명 편집, 1936년, 평양에서 발행)의 125년에 〈망향가〉(박태원 작사.작곡)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착오라고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신민요로 애창되고 있는 〈태평가〉가 고마부(高馬夫)작사.정사인 작곡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작곡가로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행진곡 추풍〉, 〈행진곡 돌진〉등인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브라스밴드 곡이니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다.

박윤근(朴潤根, 1891 ~ 1989)

박윤근은 1891년 8월 5일 평양에서 출생했으며 1914년 송실대학을 졸업한 후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미국 우스터 대학(Wooster College)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한편 부전공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파이프 오르간, 지휘를 공부하고 1921년에 귀국하여 모교에서 음악교수로만 활약하였다.

그런데 미국 유학 전부터 마우리(Eli M. Mowry 마우리) 선교사의 애제자로서 성악, 피아노, 합창, 지휘를 배웠으니 그가 음악 전공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송실대학 음악교수로서 말스배리(Dwight R. Malsbary, 1899~1977)의 전임자였으며, 1945년 말에 월남하여 1989년 12월 1일에 개봉동 자택에서 별세하였으니 그야말로 천수(天壽)를 누린 분이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양악 수입기에 있어서의 선구자로서 실로 역사적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제자가운데는 박경호, 현제명, 박원정, 계정식, 안익태, 이인호, 김세형, 정훈모, 권태호, 차재일 등을 손꼽을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평양에서 계정식, 안익태, 이인호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를 길러냈다는 점이다.

그는 대학과 교회를 중심으로 합창, 관현악 운동을 전개했는데 〈할렐루야〉(헨델 작곡)나 〈글로리아〉(모차르트 작곡)를 비롯하여 수많은 성가합창곡의 가사번역을 하였다고 하니 교회음악에 끼친 공이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마우리 선교사의 애제자는 박윤근과 김인환(金仁煥, 1891~1947)이며, 그는 브라스밴드 지도자로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김인식(金仁湜, 1885~1962)의 실제(實弟)라고 하나 그와 송실대학 동기생인 박윤근은 이를 부인(否認)하니 바른 판단이 내려졌으면 한다. 그는 송실대학 악대(브라스밴드) 대장과 장대현, 산정현, 서문박, 창동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으며 「이왕직 악대」(대한제국 군악대의 후신)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영환(金永煥, 1894 ~ 1977)

김영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서 1911년 일본에 유학하여 동양음악학교와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연주가, 음악교육자로 활동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양대산맥인 김원복(金元福, 1908~)과 이애내(李愛內, 1909~)의 은사로서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피아노를 가르친 음악가로는 1926년부터 이화여전에서 가르친 영(Mary E. Young, 美理英, 1880 ~ 1950)과, 1929년부터 숭실대학에서 가르친 말스배리(Dwight R. Malsbary, 1899 ~ 1977)와, 1932년부터 이화여전에서 가르친 우드(Grace H. Wood, 1902 ~ ?) 등이 있으며, 김영환 이후의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는 정애식(鄭愛息 또는 金愛理時, 1890 ~ 1951), 박경호(朴慶浩, 1899 ~ 1979), 독고 선(獨孤 璇, 1899 ~ 1971), 김매리(金梯植, 1906 ~), 김영의(金永義, 1908 ~ 1986), 이흥렬(李興烈, 1909 ~ 1980) 등이 있다.

김영환의 직제자 중 김원복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듀오협회 회장으로 매년 듀오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어 모든 음악인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된다.

홍난파(洪蘭坡, 1898 ~ 1941)

가곡 <봉선화>를 비롯하여 동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등의 작곡가로 이름난 홍난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베토벤, 그리그의 소나타를 비롯하여 멘델스존, 브루흐의 협주곡 전악장을 우리나라에서 초연했으니 말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즉 1925년 바이올린 독주회 때 자신의 작품인 <애수의 조선>, <로만스>, <동양풍의 무곡>을 초연했으며, 이것을 <하야의 성군>(夜の 星群)과 함께 1931년에 출판했으니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기악곡이 출판된 것도 이것이 최초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1939년 6월 「제1회 전조선 창작 작곡발표 대음악제」(동아일보 주최) 때에는 <관현악 조곡>(즉흥곡·소선전곡(小旋轉曲=Rondino)), <동양풍의 무곡>(바이올린 독주곡의 편곡)과 <관현악부 독창조곡>(나그네의 마음)을 지휘 발표한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의 바이올린 제자 가운데에는 홍재유(洪載裕, 1903 ~ 1988), 채동선(蔡東鮮, 1901 ~ 1953), 홍성유(洪盛裕, 1908 ~ 1936), 홍지유(洪志裕, 1913 ~), 김생려(金生麗, 1912 ~), 전희봉(全熙奉, 1915 ~), 문학준(文學準) 등이 있다.

홍난파 이후의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중에는 최호영(崔虎永, 1901 ~ ?), 김재훈(金載勳, 1900 ~ 1951), 계정식(桂貞植, 1904 ~ 1974), 안병소(安柄昭, 1908 ~ 1979), 이영세(李永世, 1911 ~ 1987) 등이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친 음악가로는 후쓰(Joset Huss) 우에노히사코 등이 있다.

홍난파는 1922년에 연악회(研樂會)를 창설하여 본격적인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고 현악합주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1933년에 「난파 트리오」(홍난파, 홍성유, 이영세)를, 그후에 「성서(城西) 트리오」(홍난파, 김태연, 이흥렬)를, 1937년에는 드디어 「경성방송관현악단」(Jodk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실내악과 관현악 운동에 앞장섰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김영옥, 강동석이 탄생한 것은 절대로 돌연변이(突然變異)가 아니라 고 나는 믿는다. 이는 홍난파의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1898년도 출생의 음악가로는 거쉰(Gershwin, 1898 ~ 1937) 아이슬러(Hanns Eisler, 1898 ~ 1962), 해리스(Roy Harris, 1898 ~ 1979), 스키즈 신이치(1898 ~) 등이 있다.

그리고 보면 홍난파는 너무도 일찍 우리결을 떠났다. 특히 금년은 모차르트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홍난파 서거 50주기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지...